



## “세면대에 쓰레기 가득”… 이호 폐쇄 화장실 방지

지난해 4월 이호현사항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폐쇄 출입구 개방 상태로 방치돼 내부엔 쓰레기로 가득 헛걸음하는 시민들도… 이호동 “빠른 시일 내 조치”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무 슨 쓰레기장이…”

지난 7일 제주시 이호1동의 현사포구 인근 공중화장실. 이곳은 지난해 4월 ‘이호현사항 공중화장실’이 신축되면서 폐쇄돼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곳이다.

또 바로 인근에 이호태우해수욕장과 편의점, 식당 등이 몰려 있어 주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했다.

하지만 8개월가량 폐쇄 중인 화장실의 출입구가 봉쇄되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이 두고 간 쓰레기들로 세면대 위가 가득 찬 모습이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에서부터 맥주캔, 음료병, 담뱃갑, 쓰고 버린 허지 더미 등이 세면대와 소변기를



제주시 이호1동의 현사포구 인근 폐쇄된 공중화장실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찼다. 양유리기자

뒤덮었다. 오랜 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세한 악취와 함께 내부 거울이 거칠게 변하는 등 방치돼 있었다.

화장실 바로 앞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있고, 팻말 속에는 ‘건물 앞 주차장 쪽에 신축 화장실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펜으로 적은 문구는 이미 희미해져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신축화장실보다 폐쇄된 화장실이 이호태우해수욕장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헛걸음하는 시민들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이날 폐쇄 화장실 주변을 기웃거리며 살피는 관광객들도 만날 수 있었다.

관광객 A씨는 “건물에 화장실이 라고 적혀 있길래 확인했더니 쓰레

기가 쌓여 있어 당황했다”며 “여자 화장실은 잠겨 있어 사용을 안 하는 건가 싶었다”고 황당해했다.

실제로 여자화장실의 경우엔 문이 잠겨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남자화장실만 개방돼 쓰레기가 들어찬 상황이었다.

한편 지난해 이호태우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여름철 개장 기간 내)은 총 8만7087명으로 집계됐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이로 인해 연안 낚시와 레저활동은 물론 테트라포드, 갯바위 등 연안 접근 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연안 사고 위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확대하고 낚시객 등 연안 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장계도를 강화한다.

또한 테트라포드와 갯바위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인명구조함과 안전난간 등 주요 연안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의보 기간 제주도 연안에는 초속 10~18m의 강풍과 함께 최대 4.5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피항한 어선들 제주 전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많은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 강희만기자

###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제주해경, 높은 파고 등 기상악화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해경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10~12일 강풍을 동반한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

의보’를 발령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연안에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10일부

터 12일까지 3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의보 기간 제주도 연안에는 초속 10~18m의 강풍과 함께 최대 4.5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 평화로서 음식물쓰레기차 전복… 2명 부상

평화로에서 음식물쓰레기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평화로에서 음식물쓰레기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5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일부 기름 유출이 있었으나 안전조치를 완료해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평화로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서귀포에서 제주시방면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어려우니 우회바란다”고 안내했다. 양유리기자

## 쿠팡 사태 제주도민 집단소송 본격화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1인당 최소 20만원”

법률사무소 사활 “기업 법적책임·재발방지 성격”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법률사무소 사활(대표 변호사 김민찬·자혁)은 9일 제주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2300여명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1527명

을 1차 원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신청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이뤄지면 추가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사활은 소장을 통해 쿠팡이 제주 지역 쿠팡 가입자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소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염중히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소송”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부실한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 염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기자

## 7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 양돈장 불… 돼지 203마리 폐사

주말 아침 평화로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 평화로 새별오름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승용차)가 보행자 70대 남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203마리가 폐사했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오전 7시 11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동동 1개 칸이 전소하고, 2개 칸이 연기 피해를 입어 돼지 203마리가 폐사했다. 양유리기자

##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